AI부터 뇌과학까지…마음돌봄 미래 만난다

동국대 종학연구소,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돌봄 체험’ 행사

휴머노이드 로봇 명상 안내 등
마음돌봄 디지털 기술 ‘한자리’
9월 19 · 20일 종로 토포하우스
9월 29 · 30일 동국대 도서관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9월 1일 열린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 기자간담회 직후 행사 관계자들이 명상 안내 휴머노이드 로봇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저는 조주 선사의 어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명상을 안내하도록 학습한 로봇입니다. 물론 제가 조주 선사님은 아닙니다. 다만 1200년 전 중국 당나라에서 활동하셨던 조주 선사의 말씀과 선문답의 분위기를 AI의 목소리와 움직임을 통해 잠시 느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자리를 잡아 보십시오.”

휴머노이드 인공지능(AI) 로봇 ‘애지봇(AGIBOT)’이 전하는 명상 안내 중 일부다. 이처럼 최신 마음돌봄 디지털 기술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 스님)는 9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민 정신건강 인식 제고와 일상 속 자기돌봄 확산을 위한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돌봄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9월 19~20일 서울 인사동 토포하우스와 9월 29~30일 동국대 중앙도서관 2층 IF Zone & MASIL에서 열리며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전체 프로그램은 세 개의 체험존으로 구성된다. ‘마음 웨이브 탐지(디지털 마음 진단 체험)’ 존에서는 브레인유(BrainU)의 패치형 뇌파 기기로 측정한 뇌파를 바탕으로 만다라 이미지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된다. 뉴로아로마 체험에서는 뇌파를 통해 나에게 맞는 향기를 추천받을 수 있으며, 옴니핏(Omnifit) 뇌파 측정, 유비오맥파 HR 검사 등 첨단 장비를 통해 스트레스·집중도·감정 상태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김진식 동국대 의생명공학과 교수팀이 개발한 ‘브리오라’ 타액 기반 스트레스 측정도 체험해 볼 수 있다. 이들 체험은 의료적 진단이 아닌 ‘셀프 케어 참고용 자기 점검’으로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살피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내 감정 맞춤 길잡이(AI 상담·소셜 로봇 체험)’ 존이다. 이곳에서는 로봇이 직접 명상을 이끌고 참가자와 문답을 주고받는,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체험이 진행된다. ‘애지봇’이 안내하는 명상을 마친 뒤 궁금한 점을 묻고 기념 촬영도 할 수 있으며, CES 2025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돌봄 로봇 ‘레미’와 국내 최초 소셜 로봇으로 알려진 ‘리쿠’도 명상과 마음돌봄 콘텐츠를 선보인다.

‘위로미 멘탈헬스 데스크’에서는 rPPG 카메라 센서가 비접촉 방식으로 심박과 스트레스 상태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맞춘 힐링 프로그램을 AI 상담사가 즉석에서 안내한다. ‘마음검사’ 및 ‘마음우체통’ 등 키오스크를 통해서는 자기돌봄을 위한 AI 안내와 함께 결과지를 받아볼 수도 있다.

‘내 마음을 돌보는 공간(VR/XR·WE SOUND 몰입형 마음돌봄)’ 존에서는 싱잉볼 사운드를 시각적 패턴으로 변환한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명상이 진행된다. 참가자가 직접 싱잉볼을 울리면 그 소리에 반응해 화면의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과정을 통해, 스쳐지나가는 전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곧 작품이 되는’ 체험형 공간 속에서 명상을 경험한다.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은 “AI의 눈부신 발전이 누구나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게 하는 좋은 방편(方便)이 될 수 있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취지”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AI시대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탐색하고 측정 데이터에 기반한 자기점검과 정서적 돌봄으로 시민 스스로 정서적 회복탄력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자칼럼

불교굿즈, 유행 넘어 산업이 되려면

불교굿즈가 불교와 대중을 잇는 새로운 언어로 자리 잡았다. 불상과 동자승을 활용한 인형·키링부터 불교적 문구를 담은 의류, 전통 장인이 만든 고가 오브제까지 외연도 넓어졌다. 불교박람회마다 이어지는 오픈런과 완판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이 같은 성공을 단지 ‘귀여움’이나 MZ세대의 취향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해탈컴퍼니의 ‘깨닫다’ 티셔츠가 약 3000장 팔린 배경에는 불교의 깨달음을 동시대 언어로 번역한 기획력이 있다. 여진불교의 석굴암 본존불 펀딩이 목표액의 1002%를 달성한 데에는 문화유산의 권위와 장인의 수작업, 한정판의 희소성이 작용했다. 도반HC ‘붓쯔’ 브랜드화와 부산국제불교박람회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상품이 인물·영상·공간과 결합할 때 브랜드 접점이 넓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러한 열기를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다. 오픈런과 완판은 출발점일 뿐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박람회에 집중된 판매 구조와 유행을 좇는 상품은 소비자의 관심이 옮겨가면 쉽게 흔들린다. 불교 상징을 맥락 없이 차용하거나 희화화하면 종교적 가치가 훼손될 위험도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찰과 문화유산, 창작자 사이의 정식 사용 계약과 수익 환원 원칙을 세워 ‘불교굿즈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저가 입문 상품과 실용적인 생활용품, 장인 기반의 고가 소장품을 연결하는 가격대별 상품군도 필요하다.

상품에 담긴 교리와 문화유산의 이야기를 영상·교육·명상·사찰체험으로 확장하며 팬덤을 형성해 나가는 것도 불교굿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박람회 구매자를 온라인 회원과 재구매 고객으로 연결하고, 다국어 설명과 해외배송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장기 사업을 위한 조건이다.

불교굿즈의 경쟁력은 불교를 가볍게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어렵게 느껴졌던 가르침을 오늘의 생활 속에서 이해하고 경험하게 하는 데 있다. 불교굿즈의 소비를 통해 구매자 스스로 불교적 가치관을 이해·형성시킬 수 있을 때 불교굿즈는 유행을 넘어 문화산업이자 전법의 매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가습기살균제 피해’ 온전한 배상 촉구

8월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서
故 서영철 추모 · 진상규명 촉구



가습기살균제 참사 15주기를 맞아 4대 종교가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온전한 피해 배상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촉구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개신교 교회와사회위원회,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4대 종단은 8월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4대 종단 추모제’를 열었다.

추모제는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피해 인정 범위 개선과 배상 기준 보완 등 사회 각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교계 대표로 참석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소속 한수·원경 스님은 고(故) 서영철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태도를 호소했다.

한수 스님은 “오랜 투병에도 혼신을 다해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으려 노력한 서영철 대표의 넋을 기리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슬픔에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고 위로했다.

특히 관련 사회적 책임 이행을 당부하며 “서영철 대표와 남은 피해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노력에 정부와 기업은 책임으로 응답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반영해 정부 차원의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3월 ‘가습기살균피해구제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된 가운데 오는 10월부터 피해자 보상이 국가 주도 배상 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들은 △시혜적 구제 중심의 설계 △좁은 피해 인정 범위 △피해자 단체 및 연대체의 협상권 보장 등이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현희 기자

성소수자 뺀 교육부 ‘재검토’

혐오 · 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조계종 사노위, 배포 중단 촉구

교육부가 작성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자,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9월 중 전국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던 가이드북의 내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8월 28일 ‘교육부는 차별적인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배포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부 장관은 사과하라’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 출처=차별금지법제정연대

사노위는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은 사회가 혐오와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그 기준을 담고 있다”며 “극심한 차별에 노출되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이 삭제된 것에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교육부의 책임을 명시한 사노위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부마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이렇다면 대한민국의 사회적 약자들은 사회에 어떤 기대를 걸고 살아야 하냐”며 “교육부는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하고 가이드북 제작과 배포를 중단하고 성소수자들에게도 정중히 사과하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사회대개혁을 하겠다고 들어선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길 바란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반대하며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각계의 비판 여론에 교육부는 재검토에 들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9월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가이드북이 아직 배포된 것은 아니며, 해당 문제에 대해 다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현희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財)韓國佛教 如來宗
총무원장 명 안
사부대중일동

총무원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로 1길 28-1 전화 043)731-2261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사)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혜 각
사부대중일동


총본산(총무원) 충북 영동군 양강면 양정죽촌로454-86 실상사
☎ 전화 (043)745-4508, 팩스(043)745-4506 ☎ 010-5436-2740